



루카스 경제학의 유산과 교훈

(※ 본 칼럼은 중앙일보 오피니언 “김세직의 이코노믹스”에 실린 내용입니다.)



김세직 교수

경제학자들은 문제 해결사다. 위대한 경제학자는 더욱 그렇다. 어떤 나라든 불황, 실업, 인플레이션, 제로성장 같은 심각한 경제 문제에 끊임없이 봉착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결사가 간절히 필요할 때 혁명적인 아이디어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경제학자가 등장하곤 한다. 그런 경제학자로 인한 복지 증진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지난 5월 15일 이런

해결사 경제학자 한 명을 잃었다. 199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시카고대의 로버트 루카스 명예교수다.

‘합리적 기대 혁명’ 주도한 루카스

지난 반세기 통틀어 가장 위대한 거시경제학자가 루카스 교수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루카스 교수는 1970년대에 이미 ‘합리적 기대 혁명’을 이끌며 30대의 나이에 거시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우리 시대의 대가였다. 훗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토마스 사천트 교수가 80년대에 쓴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이론의 핵심들도 결국 루카스 교수가 새로 만들어낸 경제학이었다.

경기침체를 다루는 거시경제학은 또 다른 위대한 해결사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로부터 시작되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가 아직도 불황으로 허덕이던 1936년 케인스는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이라는 책을 통해 불황의 원인을 진단하고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케인스는 물건에 대한 나라 전체의 총수요가 줄어들면 이에 맞추어 나라의 총생산, 즉 GDP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기업가의 총투자가 갑자기 줄어들면 그만큼 물건에 대한 총수요가 줄어들어 나라의 GDP도 줄어들고 불황이 찾아온다고 진단했다. 이때

정부가 지출을 직접 늘리거나 돈을 많이 풀어 다른 총수요 요인을 늘려주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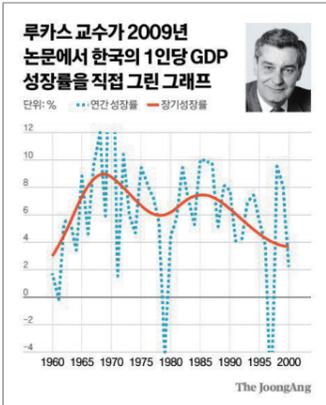
이러한 케인스의 아이디어는 이후 경제학계의 주류가 되고 여러 나라 거시정책의 지침이 되었다. 특히 국민의 총소비가 총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는 가정에 따라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GDP를 얼마만큼 증가시킬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정책 처방이 이뤄졌다.

돈 푸는 경기 부양의 한계

그런데 70년대 들어 총수요 부양정책이 인플레이션만 증가시키는 가운데 루카스 교수는 이러한 케인스식 정책 처방의 타당성에 대해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이라고 부르는 근본적 반론을 제기한다. 정부가 정책을 변화하면 국민은 이에 따라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선택을 바꿀 텐데, 기존의 케인스식 정책은 이러한 민간 경제 주체들의 대응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루카스 교수는 케인스식 정책의 중대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새 분석 틀의 핵심은 나라 전체의 GDP를 분석하더라도 그 출발은 나라를 이루는 개개인에 대한 분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숲을 분석하기 위해 그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을 먼저 봐야 하는 것처럼.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선택을 바꾸는 개인들에서부터 출발하는 분석 틀을 이용해야 함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루카스 교수는 그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틀에 따라 분석하면 케인스식의 전통적 총수요 부양정책이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밝혔다. 예를 들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간의 기대 변화를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실업을 줄이는 데 그다지 효과가 없음을 보여줬다.



그의 연구 결과, ‘합리적 기대 혁명’이라는 놀라운 변화가 1970년대에 일어났다. 이후 40년 넘게 거시경제학자들은 루카스가 구축한 방법에 따라 거시 정책 분석을 하게 됐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프레스콧은 진정한 ‘과학으로서의 거시경제학’은 루카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단언했다.

인적자본 수익률 따라 성장률 좌우

1970년대에 경기변동이라는 거시경제학의 전통적 분야에서 이미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루카스 교수는 80년대부터는 연구 주제를 경제성장으로 전환한다. 한가지 이유는, 그가 1987년 논문을 통해 증명했듯이, 경제성장을 증대하는 것이 경기변동 진폭을 줄이는 것보다 사람들의 행복을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가난에 허덕이는 지구촌 수많은 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경제성장의 해결사로 등장한 루카스 교수는 1988년 성장의 원동력에 관한 논문을 출간해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논문으로부터 ‘내생적 성장이론’이라는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이 탄생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루카스 교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즉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나 기업가에 체화된 지식이나 기술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논증하였다. 특히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그 결과 인적자본이 빠르게 축적되어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을 보였다.

루카스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인적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정책(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인하 정책)을 쓰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장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루카스의 이론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 성장정책을 통해 오랜 가난과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밝혀줬다.

루카스의 성장이론은 우리나라 성장문제에도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필자가 지난 2016년 논문에서 제시한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30년간 추락하여 이제 0%대를 향해가고 있다. 성장을 다시 회복할 처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우리에게 아인슈타인 같은 소수의 천재가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국민의 인적자본 특히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루카스 교수의 이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인적자본과 아이디어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기만 하면 고속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음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만약 루카스 교수가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민간의 대응으로 인해 무력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작용만 클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데 힘 빼지 마시고 다수 국민의 아이디어와 인적자본을 촉진하는 성장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한국과 루카스 교수의 인연

루카스(사진) 교수는 누구보다도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의 고속성장을 높이 평가한 경제학자였다. 198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찾아 나선 그가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주목한 나라도 바로 한국이었다. 루카스 교수는 ‘기적 만들기(Making a Miracle)’라는 논문에서 1960~80년대 한국의 고속성장에 경탄하며 이를 ‘기적 성장’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한국을 농구 역사상 최고의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에 비유하며, 마이클 조던을 분석하여 농구를 배우듯이 한국을 보고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루카스 교수가 이론적으로 밝힌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고도성장의 비법은 바로 ‘경제성장의 엔진은 인적자본’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의 고도성장은 세계 경제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내생적 성장이론’이라는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의 탄생까지 유발했는데, 이는 오로지 루카스 교수의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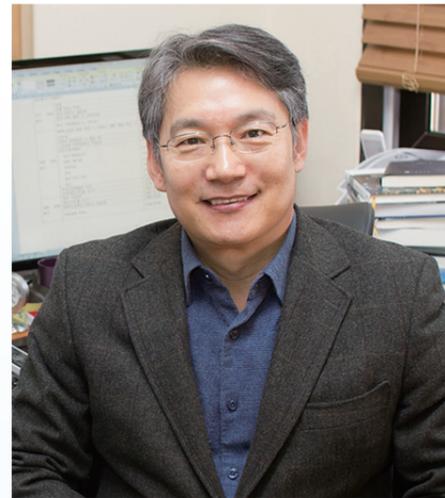


85세로 타계한 루카스 교수는 많은 한국 학생의 지도교수가 되어 탁월한 경제학자들을 한국에 안겨 주었다. 이지순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가 루카스 교수의 가르침을 받았다.

루카스 교수는 필자의 지도교수이자 평생의 멘토이기도 했다. 1989년 가을 어느 날 연구실에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열정적으로 강조하며 필자에게 한국 고도성장의 비결을 탐구하는 논문을 써 볼 것을 권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케인스나 프리드먼 같이 우수한 한국 학생들을 키워 당신에게 보내달라던 말씀도 귀에 쟁쟁하기만 하다. 아, 루카스 선생님!

교수 수상 및 동정

김병연 교수, 황윤재 교수,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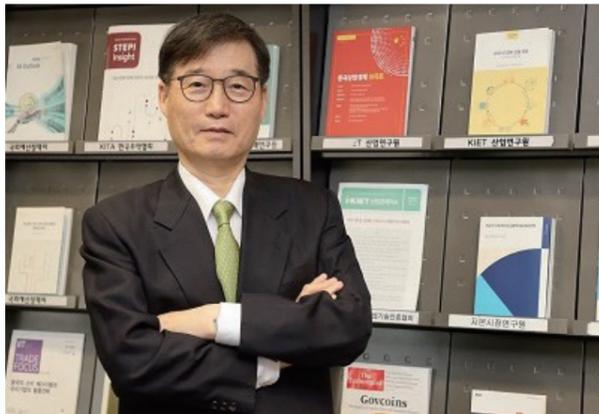
우리 학부의 김병연 교수와 황윤재 교수가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김병연 교수는 경제체제와 체제 이행 분야의 저명한 석학으로 세계에서 연구가 되지 않았던 북한경제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비교경제학 분야의 최고권위지인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와 행동경제학 분야의 최고권위지인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에 게재되었다. 특히 세계비교경제학회총회의 차기 현지 조직위원장으로 선정되었다

황윤재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계량경제학자로 경제학 분야 최고학술지인 Econometrica, Review of Economic Studies 및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포함하여 40여 편의 논문이 세계적인 탐저널에 게재되었으며, 국내 대학 소속 교원으로는 유일하게 경제학자의 최고 영예로 인정되는 Econometric Society의 석학회원으로 선출되어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 및 각국의 경제리더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인 2025년 세계경제학자대회를 서울에 유치하고 대회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수 수상 및 동정

이근 교수, 학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



학현학술상위원회(위원장 강철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는 제13회 학현학술상 수상자로 이근 석좌교수를 선정했다. 이 석좌교수가 최근 3년간 기술혁신과 경제발전 분야의 연구를 한단계 더 심화 발전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학현학술상은 한국 경제학계의 거목인 학현 변형운 선생(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한국의 경제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장용성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장용성 교수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금통위는 의장을 겸직하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의 추천을 각각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장용성 교수는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을 받아 금통위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장용성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에서 펜실베이니아대와 로체스터대, 국내에서는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맡아왔다. 미 연방준비은행(연은) 12곳 가운데 하나인 리치먼드연방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2003~2004년)를 지냈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미 연은의 컨설턴트로 겸직 활동도 해왔다.



논문 소식

서명환 교수

학술지 *Econometrica*에 논문 게재



서명환 교수

서명환 교수가 세계 최고의 경제학 학술지 중 하나인 *Econometrica*에 논문 Robust Inference On Infinite and Growing Dimensional Time Series Regression을 게재하였다.

Abhimanyu Gupta (Essex U)와 공저한 이 논문에서 저자는 고차원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에서 다수의 가설을 검정할 때 기존의 F-test나 Wald test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고 올바른 통계추론을 위한 수정방법을 개발했다.

Dmitry Shapiro 교수

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에 논문 게재



Dmitry Shapiro 교수

Dmitry Shapiro 교수가 23년 8월, 행동 경제학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에 논문 Quality communication via cheap-talk messages in experimental auctions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 판매자와 저품질 판매자를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품질 판매자가 자신의

제품 품질을 정직하게 공개할 유인이 있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품질에 대한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는 cheap-talk messages를 통해 전달되며, 이 때 DA 또는 APA 등의 위험한 경매 양식 하에서 고품질 제품에 대한 prior probability가 낮은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저품질 판매자가 자신의 제품 품질을 정직하게 공개할 유인이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판매자의 유보 가격 결정 능력이 제품 품질과 무관하게 경제 주체 간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개선도 가져오지 못함을 살펴본다.

박예나 교수

학술지 *The Review of Economics Studies*에 논문 게재



박예나 교수

박예나 교수가 세계 최고의 경제학 학술지 중 하나인 *The Review of Economics Studies*에 논문 Trust in Risk Sharing: A Double-Edged Sword를 게재하였다. 본 논문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확률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금융계약 하에서 채무 불이행시의 가치가 경제내 다른 금융계약의 가능성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될 때 최적 위험분산과 소비 패턴을

연구하였다. 내생적 불완전 시장모형 중 거시경제학의 기본모형인 Kehoe and Levine (1993)의 유한책임 금융계약모형 (limited commitment model)에 기반하여 소비자들에게 채무이행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균형 계약을 분석하되, 현실적 환경에 맞도록 확장모형을 개발하였다.

채무 불이행자들의 시장참여를 완전히 제한하는 기존의 기본 모형들과는 달리 보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금융계약 체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시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는 모형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형은 내생적 불이행 가치를 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론적 분석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도 분석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관련연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의 협력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경제내 신뢰도가 계약환경의 불완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형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확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제내 신뢰도의 최적 소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경제 내의 신뢰도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경제에서의 금융 계약은 최초계약의 성립 확률과 채무 불이행자들의 새로운 금융계약 체결의 가능성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채무이행 인센티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내 신뢰도와 위험분산의 효율성 간에는 비단조적 관계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은희 신임 교수 인사말



이은희 교수

안녕하세요. 올해 3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오게 된 이은희입니다. 저는 본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2011년에 미국 Yale 대학교로 박사과정 유학을 떠나 2016년에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올 2월까지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경제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작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에서 선임경제학자를 겸직했습니다. 박사 유학 때부터 1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을 떠나 오 랜만에 한국에 돌아오니 많은 것이 낯설기도, 또 반갑기도 합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국제무역입니다. 국제무역이라는 경제학 분야가 예전에는 단순한 최종재의 통상 교역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현재는 국제화의 다양한 양상이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s, GVC)과 이민 정책이 기업의 기술 혁신 및 생산성, 노동 시장 전반 및 가계 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을 근본에서부터 이해해 보면, 결국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제 주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환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주체가 국가이고 교환의 대상이 최종재 라면 일반적인 통상 교역이지만, 오늘날 국제화의 양상은 이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역의 대상이 중간재라면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GVC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국가 간 이동하는 대상이 노동자 라면 해외 이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 무역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저는 이와 같은 양상이 기업 및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큰 관심을 두고 연구해 왔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국가 간 분업화가 심화될수록, 최종재화가 소비자 에게 도달할 때까지 여러 번 무역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각 국가 및 산업은 비교우위에 따라 GVC의 상류 (upstream) 혹은 하류 (downstream) 에 위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거시경제의 충격이라도 GVC를 지나 면서 그 영향이 확대되고, 각 국가가 GVC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영향의 방향과 정도 또한 달라집니다. 저는 이러한 GVC의 형태를 경제학 모형을 통 해 분석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 하는 연구 를 해 왔습니다. 제 이전 연구에서는 국가들이 GVC에 참여할수록 노동시장 의 불평등이 모든 국가에서 증가함을 새로운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보였습니 다. 제가 최근에 특히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주제는 GVC를 국가 단위가 아닌 기업 단위에서 분석하고, 큰 규모의 공급망 충격이 발생했을 때의 영향이 개 별 기업의 기술 혁신 및 고용 결정과 개별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실질적

의사결정주체의 GVC참여에 관한 인센티브를 자세히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는 고속런 이민과 연구개발 (R&D) 아웃소싱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의 국제화가 기업 생산성 및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국가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라 노동력 (이민) 혹은 아이디어 (R&D 아웃소싱) 라는 점에서 국제화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 인 제 연구에서는 덴마크의 마이크로데이터와 새로운 R&D 분석 모형을 통해, 고속런 이민자의 증가가 R&D 해외 아웃소싱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서 기업 생산성 및 국가 전반의 거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방법론 측면에서 제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 및 개별 노동자의 이질성 (heterogeneity)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마찰요인 (friction)을 국제무역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 히 기업과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 측면에서의 이질성을 모형에 고려했을 때 국제무역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합니다. 또한, 기업이 GVC 참여나 R&D 투자 결정을 할 때 발생하는 마찰요인, 노동자가 국제무역 환경 변화로 인해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해야 할 때 고려하 는 후생 손실 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모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개별 기업 및 노동자 단위의 자세한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에서 설명한 모형들을 수량화 하는 것입니다. 국제무역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학 전반에 걸쳐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 가들이 국가기관의 주도로 국가 경제의 다양한 부분을 동시에 아우르는 마이크로데이터를 구축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훌륭한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들은 해외의 경제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흥미로운 연구를 많이 진행합니다. 저는 미국, 덴마크, 브라질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사 용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아직은 한국의 데이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한국도 각 분 야별로 좋은 마이크로데이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연구를 주도하는 다른 국가 들과 비교하여 한국은 데이터베이스 간 연결의 완결성 정도가 현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 은데, 향후에는 한국 마이크로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제 연구 주제들을 진행하고 싶습니 다. GVC 모형을 통한 공급망 충격 분석, 고속런 이민의 영향, 기술혁신의 국제화와 같은 현재 제 연구 주제들은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과 밀접히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 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주제를 한국 상황에 맞게 연구할 수 있으면 큰 의의가 있을 것 입니다.

긴 미국에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커리어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것은 기대 되는 일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했던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서울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그리고 첫 학기 내내 많은 도움을 기꺼이 나눠 주신 학부 교수님들과 학부사무실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학기 수업에서 만난 학부, 대학원 학생들은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경제 학 연구의 프론티어를 열어 가는 학부가 되기 위한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학부에 일어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학부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 지 만,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와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부의 변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2010)
Yal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2016)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경제학과 조교수 (2016-2023)
Federal Reserve Board 선임경제학자 (2022-2023)

경제학부 학술행사

Conference on Inequality and Mobility / Summer School on Socioeconomic Opportunity and Inequality



2023년 7월 17일부터 5일간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Inequality and Mobility”라는 주제로 Conference와 Summer school이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경제연구소(IER), 시카고 대학 Stone Center for Research on Wealth Inequality and Mobility, 그리고 최중현 학술원(CHEY Institute)이 공동으로 주최하는(후원 기관: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소, 한국경제혁신센터 및 SSK 뉴 노멀 시대의 성장과 소득분배 연구집단) 이번 학술행사는 7월 17일부터 18일에는 Conference가 개최되었으며 19일부터 21일에는 대학원생들도 참여하는 Summer school이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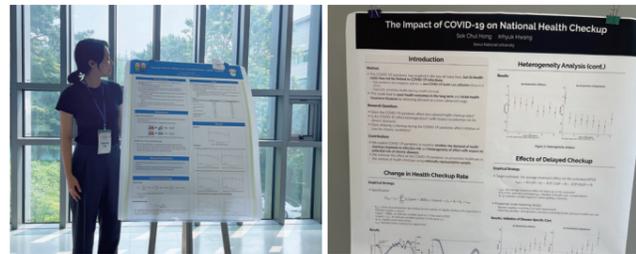


연구 논문 발표

을 발표하였다. 그 외에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경제학자들이 추가로 11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총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Keynote speaker 강연



대학원생 포스터 세션

Summer School은 학생들과 junior faculty를 위한 강의로 구성되었고, 총 5개의 강좌가 진행되었으며 강의를 진행한 교수들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 50명 정도의 우리 학부 및 국내외 타 대학의 대학원생들과 junior faculty가 summer school 강의를 수강하였다. 이와 함께 7월 20일(목)에는 Conference에 참여한 해외 교수들과 국내 교수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주제: Inequality and Global Risk)가 2시간 가량 진행되었고 우리 학부의 홍석철 교수가 "Population Crisis and Deepening Inequality"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4명의 패널(Durlauf, Caetano, Pan, 고려대 김진영 교수)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열린 토론을 벌였다.

국제 학술 세미나 및 해외 석학 초청 특강 개최

KBER Summer Institute Macroeconomics July 10(Mon) 2023 Wooseok Building 504, Seoul National University

Session 1	Moderator: Jay H. Hong (SNU)
10:0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Plant-Level View of an Industrial Policy: The Korean Heavy Industry Drive of 1973 Yongseok Shin (Washington U. St. Louis) Land Development and Frictions to Housing Supply over the Business Cycle Choongryul Yang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12:00 - 13:00	Lunch
Session 2	Moderator: Jae Won Lee (SNU)
13:00 -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e inflation expectations anchored for everyone? Evidence from household surveys Woong Yong Park (SNU) The Ultralong Sovereign Default Risk Radek Paluszynski (U of Houston)
15:00 - 15:20	Break
Session 3	Moderator: Yongsung Chang (Bank of Korea)
15:20 - 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angible Capital and Shadow Financing Hyunju Lee (Toronto Metropolitan U) Lifestyle Behaviors and Wealth-Health Gaps in Germany Minchul Yum (Southampton U)

KBER Summer Institute: Macroeconomics

Conference on Inequality and Mobility 2023.7.17. MON~7.18. TUE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504호

Organized by Yoonsung Chang, Steven Durlauf, Dae-il Kim, Jungmin Lee

17 MON SNU Wooseok Economy Hall BLD # 223, Room 504 Day 1	18 TUE SNU Wooseok Economy Hall BLD # 223, Room 504 Day 2
<p>08:30-09:00 Registration</p> <p>Session 1: Segregation Inequality Chair: Chul-In Lee (SNU)</p> <p>09:20-10:00 Grego Caetano (UGA) <i>Shifting Home Housing, Segregation Dynamics and Policy</i></p> <p>10:30-10:50 Gyeong Kim (SNU) <i>Black-White Differences in Intergenerational Occupational Mobility and Inequality Since the 1980s</i></p> <p>11:00-11:40 Sak Aoon Sen (U Tokyo) <i>Distributional Impacts of Centralized School Choice</i></p> <p>11:40-12:00 Lunch Break</p> <p>Session 2: Intergenerational Mobility Chair: Chul-In Lee (SNU)</p> <p>13:00-14:00 Steven Durlauf (U of Chicago) <i>Keynote Speech: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Korea</i></p> <p>14:10-14:50 Alessandro Toppo (UCL) <i>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Socio-emotional Skills</i></p> <p>15:00-15:40 Kwan Ju Tong (NTU) <i>Effect of Home Working on Labor and Family Decisions</i></p> <p>15:40-16:00 Coffee Break</p> <p>Session 3: Measurement of Inequality and Mobility Chair: Changhul Kang (KAIST)</p> <p>16:00-16:40 Yoonsung Chang (Indiana U) <i>How Do Macroeconomic and Income Distribution Interact Dynamically? A New Structural Model Approach with Aggregate and Functional Variables</i></p> <p>16:50-17:30 Bo-Hu Pheng (UST) <i>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Using Markovian Transition</i></p> <p>18:00-20:00 Welcome Reception</p>	<p>Session 4: Gender Gap in Inequality Chair: Charma Yoon (DRI)</p> <p>09:00-09:40 Jessica Pan (NUS) <i>Automation and Gender: Implications for Occupational Segregation and the Gender Skill Gap</i></p> <p>09:50-10:30 Junghee Lee (SNU) <i>Financial Crisis and Female Entrepreneurship: Evidence from South Korea</i></p> <p>10:40-11:20 Yongsung Chang (SNU) <i>Intergenerational Occupational Mobility: A New Approach via the Occupation</i></p> <p>11:20-12:40 Lunch Break</p> <p>Session 5: Education Inequality Chair: Yongsung Chang (SNU)</p> <p>12:40-13:40 Dae-il Kim (SNU) <i>Keynote Speech: Better Control and Unequal Opportunity: Equal Education, Unequal Outcomes?</i></p> <p>13:50-14:30 Yongsung Chang (SNU) <i>Impacts of Schooling, Education, Test Scores, Non-Cognitive Skills and Academic Inequality</i></p> <p>15:00-15:40 Coffee Break</p> <p>Session 6: Trade, Environment and Inequality Chair: Hee-Seung Yang (Yonsei U)</p> <p>15:40-16:20 Jungmin Lee (SNU) <i>Human Capital, Social Insurance, Migration, and Working Hours</i></p> <p>16:30-17:10 Jun-Hyung Kim (SNU) <i>Effects of Early Childhood Closure on Cognitive Development</i></p> <p>17:20-18:00 Eunhee Lee (SNU) <i>Trade, Jobs and Worker Welfare</i></p> <p>18:00-20:00 Conference Dinner</p>

Conference on Inequality and Mobility

Summer School on Socioeconomic Opportunity and Inequality 2023.7.19. WED~7.21. FRI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307호, 107호

Organized by Yoonsung Chang, Steven Durlauf, Dae-il Kim, Jungmin Lee

19 WED Summer School Day 1	20 THU Summer School Day 2	21 FRI Summer School Day 3
<p>Lecture 1 9:30-12:00 Steven Durlauf (U of Chicago) <i>Intergenerational Mobility</i></p> <p>Lecture 2 14:00-16:30 Jessica Pan (NUS) <i>The Evolution of Gender in the Labor Market</i></p> <p>Office Hour 16:30-17:30</p> <p>Charmak Party 18:00-20:00</p>	<p>Lecture 3 9:30-12:00 Grego Caetano (UGA) <i>An Empirical Framework to Study Segregation</i></p> <p>Lecture 4 9:30-12:00 Yoonsung Chang (Indiana U) <i>Understanding Regressions with Functional Covariates</i></p> <p>Lecture 5 14:00-16:30 Moderator: Dae-il Kim (SNU) <i>Panelists: (Sokchul Hong (SNU, PCASPP), S. Durlauf (U of Chicago), J. Pan (NUS), G. Caetano (UGA), Jinyoung Kim (Korea U))</i></p> <p>Office Hour 16:30-17:30</p>	<p>Lecture 6 9:30-12:00 Yoonsung Chang (Indiana U) <i>Understanding Regressions with Functional Covariates</i></p> <p>Lecture 7 14:00-16:30 Chulhee Lee (SNU) <i>Early-Life Determinants of Health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Evidence from Korea</i></p> <p>Office Hour 16:30-17:30</p>

Summer School on Socioeconomic Opportunity and Inequality

2023 KBER Summer Institute Machine Learning for Econometric Inference

일시 2023년 7월 27일(목) 10:00-17:15
장소 우석경제관 307호

Day 1 Thursday, 27 July 2023
<p>09:45 - 10:00 Registration</p> <p>Session Chair: Xiaohong Chen (UST)</p> <p>10:00 - 11:00 <i>Some Thoughts about Stochastic Approximation to Nonlinear GMMs</i></p> <p>11:00 - 12:00 <i>Finite Sample Bounds in (De)spiked GGD</i></p> <p>12:00 - 13:30 Lunch</p> <p>Session Chair: Yoon Lee (SNU)</p> <p>13:30 - 14:30 <i>Empirical Applications of SDMM</i></p> <p>14:30 - 15:30 <i>Selection of Learning Rate for SDMM</i></p> <p>15:30 - 15:45 Break</p> <p>Session Chair: Youngil Shin (SNU)</p> <p>15:45 - 16:15 <i>Identification in Bandwidth Designs under General Heterogeneity in Preferences</i></p> <p>16:15 - 16:45 <i>Online Algorithms for the Contextual Multi-Armed Bandit Problem</i></p> <p>16:45 - 17:15 <i>Weighting Schemes for Stochastic Approximations</i></p>

해당 세미나 이후 진행되는 2강의는 BK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BK 세미나 참석으로 인정됩니다.

KBER Summer Institute: Machine Learning for Econometric Inference

기타 학술 행사

애덤 스미스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애덤스미스 경제학의 현대적 재조명 -



애덤 스미스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http://cdj.snu.ac.kr>)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애덤 스미스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지난 6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반,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애덤 스미스 경제학을 이기적 경제인과 자유방임주의의 틀로 보는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고 <도덕 감정론>에 나타난 애덤 스미스 도덕철학의 연장선상에서 그의 경제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대 글로벌 자본주의의 문제와 한국경제의 현안과 관련하여 애덤 스미스 경제학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초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정운찬전총리의 기념사, 김광수교수(성균관대)와 주병기교수(서울대)의 기초발제 그리고 김병연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이명현교수(인천대), 이제민교수(연세대), 장경덕(前)매경논설실장, 최정규교수(경북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도전과 정부의 역할



경제와 정의 포럼 출범식

지난 5월 11일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도전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경제와 정의 포럼(Economy and Justice Forum)”이 명동 은행회관(온라인 병행)에서 진행되었다. “경제와 정의 포럼(Economy and Justice Forum)”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포럼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민주주의 성숙과 공정한 분배)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경제학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및 정책 토론의 장이다. 정운찬 전 총리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하준경교수(한양대)와 박기영교수(연세대)의 기초 발제 그리고 김영식교수(서울대)의 사회로 김유찬교수(홍익대), 안상훈박사(KDI), 이근교수(서울대), 정세은교수(충남대), 홍종호교수(서울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재학생 기고글

“우연은 항상 강력하다. 항상 낚시바늘을 던져두라.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주민정 (학부 22학번)

대학에 입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 반 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대학 생활 곳곳에서 여러 선물 같은 기회들을 마주하였습니다. 우연하게 마주하고 도전한 일들이 가져다준 경험과 인연들은 현재 제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자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공간을 빌어 대학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들의 일부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경험 중 첫 번째로 경제학부 동문 인터뷰 동아리(People of Economics) 활동을 듣고 싶습니다. 1학년 2학기에 우연한 기회로 졸업을 앞둔 선배들이 만든 인터뷰팀에 참여하였습니다. 당근마켓의 김용현 대표님, KIEP 김흥종 원장님 등 다양한 직군에 몸담고 있는 경제학부 졸업생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경험을 학부생들에게 공유하는 활동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인터뷰 활동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올해 초, 인터뷰 동아리를 만들었고 매월 꾸준히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사를 경제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에게 콜드메일을 보내고 인터뷰를 따서 기사화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않은 않았습니니다. 동아리의 체계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경험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일개 학부생으로서 각계 탐인 분들께 무작정 인터뷰를 부탁드리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했죠. 다행히 많은 졸업생 분들이 흔쾌히 응해주셨고 덕분에 좋은 기사를 쓰는 것은 물론, 귀중한 삶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찬 이성, 더운 가슴’과 같은 경제학도의 격언을

들을 수 있었고 비교적 생소했던 디지털 미디어아트 같은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이 학부생들에게 놀랍도록 비슷한 조언을 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자 자신들만의 단어와 스토리로 표현하였지만, 결국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도전’과 ‘스스로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로 추릴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삶을 살았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를 꼽는 것을 들으며 새삼 도전과 자기 탐색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말들을 많이 들었고 어떻게 학부생활을 보내야 하는지 속고해볼 수 있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함께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한 선배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연한 기회를 계기로 시작한 활동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1학년 겨울에 참여했던 스누인(SNU in the World) 활동도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도 우연히 모집 공지를 발견하여 신청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추억과 인연을 안겨주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거의 2주간 머무르며 브루킹스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CSIS 등 유수의 싱크탱크들과 세계은행, 미국 의회의사당 등의 기관들을 방문하여, 유명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장소에서, 기사에서만 보던 사람들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

는 기회에 프로그램 내내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도해 주신 교수님과 조교님들, 그리고 같이 간 선배·동기들 모두 인간적으로 배울 점이 많았기에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들과 조교님들, 그리고 선배들을 보며 좋은 어른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고 나이를 어떻게 먹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 학부생들께도 이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들이 제 대학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경영대학 소속 컨설팅 학회인 '티움' 활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회공헌에 뜻이 있는 학회원들과 학교 주변의 영세자영업자 분들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행운동생활상권단과 협력하여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공헌과 컨설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 토론 동아리인 SNUA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아리를 통해 여러 국내/국제 디베이트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태국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디베이터들을 보며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은 제게 보다 넓은 세계를 보여주었고 덕분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 찾아온 기회들은 좋은 사람들과 연이 닿게 해주었고, 그 인연들은 더 큰 세계와 기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교환학생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교환학생을 신청할 때만 해도 티오가 한 명이었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운 좋게도 희망하던 대로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2학년 2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지 설레는 마음이 더 큼니다.

그동안 교환학생의 목표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우연'의 힘을 믿어볼까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그 경험들이 만들어주는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예상한 곳에서 오는 배움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오는 배움이 더 크다고 느꼈기에, '예상 밖의 일'들을 탐색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충분히 주고 싶습니다.

삶에 빈칸이 생긴다면 이를 강박적으로 메우기보다는 주변의 '우연'들을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요? 짧다면 짧은 지난 3학기의 시간이었지만 '우연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삶에 빈칸이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빈칸의 가치와 우연의 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People of Economics

글 이윤경 (People of Economics 회장, 경제학부 22학번)



1. 동아리 소개

People of Economics는 2023년에 창설된 경제학부 산하 동아리로 경제학부 주전공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People of Economics는 민간, 공직, 학계에 진출해 계신 경제학부 동문들을 인터뷰하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공식 홈페이지(<https://econ.snu.ac.kr/events/alumni-interview>)에 기사를 게재합니다. 동문들의 학부생 시절, 진로 선택 동기, 현업에서의 고민, 후배 경제학부 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담아 경제학부 학부생에게 폭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당근마켓 창업자 김용현 선배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황지수 선배님, MBK파트너스 CFO 이인경 선배님, KIEP 원장 김흥종 선배님, 디스트릭트 대표 이성호 선배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근 선배님, 세계은행 경제학자 조운영 선배님, Fin2B 대표이사 박상순 선배님을 인터뷰하였으며, 23-2학기에는 총 8회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지도교수님 소개

People of Economics의 지도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서정 교수님입니다. 신생동아리인 만큼 지도교수님께서도 People of Economics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3. 동아리 활동 소개

경제학부 Alumni 인터뷰

매달 1회 인터뷰 기사 게재를 목표로 최소 1달에 1번 인터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 섭외 후 일정조정, 인터뷰 질문 리스트 작성 등 사전에 조율을 마친 뒤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약 1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할 기사와 배너를 제작, 편집하고 최종적으로 인터뷰이의 피드백을 거쳐 학부 홈페이지와 People of Economics 인스타그램에 게재합니다.

People of Economics에서는 인터뷰 실무 경험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진행하는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경제학부 A, B, C반 학생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동아리 Alumni와의 네트워크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업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을 만나 기사로만은 알기 어려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진로 탐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생과 졸업생을 잇는 People of Economics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홈페이지 EVENTS>Alumni Interview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K21 - Four 사업단 소식

본 사업단은 2020년 9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지난 7년간 BK21플러스 사업을 바탕으로 연구, 교육 및 국제 평판도에서 국내 1위를 확고히 했다. 『한국 경제의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은 “한국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20위권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가 되고자 한다. 우리 사업단은 국내 1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가 되기 위해 (1) 교수진의 연구 역량 질적 향상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의 교육 체계 개편 (3) 양방향 국제화 실현 (4) 한국경제 당면 과제 해결 기여라는 4가지 실천 전략을 토대로 해외 연구중심대학과 국제기구로 진출 가능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2023년도 상반기 학술활동

BK21사업단은 2023년도 상반기에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15회
- BK21/금융경제연구원 세미나 11회
- 소규모 세미나 10회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MICRO)

Daniel Quin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Bid Shopping” in Procurement Auctions with Subcontracting

이승훈 (연세대학교)
Entry and Welfare in General Equilibrium with Heterogeneous Firms and Endogenous Markups

도지환 (연세대학교)
Partial Secrecy in Vertical Contracting

장두석 (울산대학교)
Modeling Sacrifice in Games

Annie Liang (Northwestern University)
Algorithmic Design: A Fairness-Accuracy Frontier

Evan Friedman (Paris School of Economics)
Quantal Response Equilibrium with (A)symmetry: Representation and Applications

최재필 (연세대학교)
“Sherlocking” and Information Design by Hybrid Platforms

박인욱 (Bristol University)
Third-Party Sale of Information

이상목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table allocations in discrete economies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METRICS)

신용철 (York University)
Generalised Canonical Correlation Estimation of the Multilevel Factor Model

김지현 (성균관대학교)
Mean Reversion and Stationarity

Jack Porter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Asymptotic Representations for Sequential Decisions, Adaptive Experiments, and Batched Bandits

Javier Hidalgo (London School of Economics)
Testing Nonparametric Shape Restrictions

공윤미 (Rice University)
Liquid Markets: An Empirical Analysis of a Water Exchange

강병훈 (Lancaster University)
Robust Inference for GMM with Possibly Nonsmooth Moments

BK21 금융경제연구원 세미나

이중섭 (서울대 경영대학)
DAO Governance

마은성 (연세대학교)
The 40-Hour Work Week and Business Cycles

김한빛 (서울대 경제학부 석사과정)
Optimal Product Market Intervention and Redistribution

Antoine Ferey (Ludwig Maximilian University of Munich)
Redistribut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Todd Keister (Rutgers University)
Optimal Swing Pricing

Rafael Guntin (University of Rochester)
The Micro Anatomy of Macro Consumption Adjustments

Terry Mo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Tax Cuts, Firm Growth, and Worker Earnings: Evidence from Small Businesses in Canada

Marios Karabarbounis (Richmond Fed)
Disincentive Effects of Pandemic Unemployment Benefits

Steven Davis (Chicago Booth)
Sticky Wages on the Layoff Margin

Sebastian Dyrda (University of Toronto)
Optimal Taxa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A Ramsey Approach

Sewon Hur (Dallas Fed)
Optimal Bailouts in Banking and Sovereign Crises

소모임 세미나

응용계량경제학 리딩그룹 소모임 세미나 10회

23년 1학기

장학금

장학금 수혜 현황

2023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277명, 대학원생 65명이 수혜를 받았다.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408명, 대학원생 15명이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상대향상 재단을 통해 학부생 31명이 향상장학금을 받았다.

교무 및 학생활동

제77회 전기 학위수여

경제학부는 박사 5명, 석사 4명, 학사 150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제77회 전기 학위 수여식은 2월 24일 금요일 관악캠퍼스 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2023년도 하계 계절학기가 2023년 6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 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2’, ‘한국의 경제발전과 세계경제’,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정치경제학입문’, ‘경제수학’, ‘경제사’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2023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이철인	Analysis of Public Policies
주병기	Microeconomics
박지형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이은희	International Trade
Dmitry Shapiro	Studies in Micro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Gueron Yves	Microeconomics, Topics in Microeconomics
김석호	Introduction to Economics

학생수상



양현준 (학부 19학번)

경제학부 양현준 학생팀(양현준(경제), 김근태(사회복지), 장예나(불어불문), 윤여중(지리교육))이 한국은행에서 주최하는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BNPL이라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성장 가능성에 비해 규제가 미비한 현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BNPL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BNPL 규제 현황을 검토하고,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법률들을 어떻게 BNPL 규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 모색하였으며 감독 방법 및 한도의 설정과 같은 사항을 제언해 BNPL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논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본 대회는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최되었습니다. 공모 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과 개선과제였으며, 시상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에게 이뤄졌다.